

이건희 학위 수여 항의 시위 참가자 징계를 반대하는 목소리

징계 계획을 중단하라

징계에 반대하는 교수님들과 진보 인사들의 성명서

“고려대학교의 이성적 판단을 촉구한다”

최근 고려대학교 당국이 이 날 시위를 ‘주동’한 학생들 5명을 징계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은 사회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견회 회장 철학박사 학위 수여에 반대한 학생들은 바로 대학 본연의 역할인 성찰과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 뿐이다. 그런데 학교가 이런 학생들의 정당한 비판의 내용과 본질을 무시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권리까지 강제로 침해하려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대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우려스럽게 되묻게 한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일부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결코 ‘폭력배’도, ‘학교의 망신거리’도 아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분

별하고 이를 구현하려 노력하는 훌륭한 제자들이다. 이들은 ‘자유·정의·진리’라는 고려대학교의 교훈에 비추어서도, 한국 사회의 진보적 변화에 앞장서 온 고려대학교 선배들의 전통에 비추어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학생들이다.

고려대학교가 학생들의 행동과 비판을 징계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토론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 만약 고려대학교 당국이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매우 반교육적인 처사이다. 고려대학교 당국이 사회 안팎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를 촉구한다.

고대 출신 국회의원 3인 노회찬, 이영순, 천영세

학교 당국에 징계 반대 서한을 제출하다

지난 12일 ‘징계반대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 고려대 출신 국회의원 3인의 ‘징계 반대 서한’이 학교 측에 전달됐다.

“5월 2일 학생들의 시위는 대학생들의 시대정신을 엿볼 수 있어 충분히 이해가 간다. ...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대한 징계는 많은 우려를 낳는다. ... 이견회 회장의 신경영 철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전근대적 패러다임이며 인문학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철학 명예박사 수여는 용납할 수 없다. ... (학교당국은) 학생들을 용서해 진정한 고대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강수돌(고려대 교수) 고길섭(문화비평가, 문화연대) 김달곤(경상대 교수)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백좌흠(경상대 교수) 신영전(한양대의대 교수) 안태정(한국노동문제정책연구소 연구원) 이규표(인천대 부교수) 이정호(방송대 교수) 이종영(성공회대학 연구교수) 이진석(충북의대 교수) 이창호(경상대 교수) 임준(가천의대 교수) 장상환(경상대 교수) 정병기(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정성진(경상대 교수) 정은교(전교조 전 편집실장) 정진상(경상대 교수) 조경숙(작가/미술인회의) 조성일(서울대 교수) 조흥준(울산의대 교수) 주무현(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지금중(문화연대 사무총장) 최용준(한림의대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홍승권(서울대 교수) 황갑진(경상대 교수, 경상대 민교협 회장) 황상익(서울대 교수, 교수노조 前위원장) [5월 15일 현재 28명. 가나다순. 서명은 계속됩니다.]



홍세화가 학교 당국에게

“사람 되세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지은이)

“아무리 천박한 사회라 할지라도 ‘배부른 돼지’를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미 그 선을 넘어 ‘소유’ (당신이 사는 곳)가 ‘존재’ (당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 있다. ... 인문학을 돈 주고 판 대학 당국에 항의한 고대생들에게서 희망의 싹을 본다. 대학당국의 인사들과 오히려 학생들을 꾸짖는 ‘점잖은’ 인사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말이 있다. 부자 되기 전에 ‘사람 되세요!’”



이견희 박사학위 수여 항의 시위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2)

소식지 1, 2호에 이어 '이견희 학위 수여 항의 시위'에 대한 여러 개인들과 단체들의 지지 글과 성명서를 실었습니다. 매우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지면관계상 모든 글을 실을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개인과 단체의 지지글 전문은 '다함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lltogether.or.kr>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

“의사표현이 폭력적으로 억압되거나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또 다른 망령이며 지금까지 억압적 체제에 맞서 싸워온 학생운동의 정신마저 심각하게 부정하는 행위이다. ...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대학에 기부한 금액의 크기만을 놓고 대학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자 대학의 사회

적 역할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 이제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냉정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

“(학교) 당사자들이야 부인하고 있지만 제반 정황상, 기념관을 기부한 대가로 학위를 수여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상아탑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서 대학마저 자본에 굴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가 자본의 전횡 앞에서 학교를 구하기 위해 앞장선 학생들에게 포상은 하지 못할지언정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징계가 강행된다면 고려대학교는 그 정신은 죽고 '기념관'만 남은 채 자본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대학 보직교수들이 모두 사표를 던지고 무슨 죽을 죄를 지은 양 총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호들갑 속에서 학생들이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파렴치한으로 단죄되는 이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 그것은 삼성의 그 화려한 빛과 영광 뒤에 다수 국민들, 특히 노동자들의 짙은 그림자와 한숨과 피눈물이 있기 때문이다. ... 대학당국은 학생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했던 일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들어 보기 바란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고려대학교 당국에게 요구한다. 고려대 학우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춰라. 오늘의 사태를 몰고 온 학교당국의 책임자는 고려대 학우들에게 백배 사죄하라. 1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고려대학교 학우들

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학우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경우에는 노동자 민중들과 연대하여 적극 맞설 것이다.”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부당한 학교당국의 행태에 항의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고려대 학생들의 권리이자 용기있는 행동으로 본다. 그런데 학교당국과 보수언론은 정당한 학생들의 시위를 마치 부도덕한 짓이라도 되는 것인 양 일방적으로 몰아가면서 관련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 민주주의와 진보의 시대에 얼마나 어이없는 모습인가? ... 이번 항의시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한 고려대의 발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덧붙이며, 건강한 고려대 학생들의 이성적인 토론과 실천을 기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민주언론 실천위원회

“언론노조 신문민심위 위원들은 지난 2일 고려대학교에서 이견희 삼성 회장의 학위 수여식에서 빛어진 사건과 관련 신문들이 삼성에 바짝 엮드린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매우 >> 3면에 계속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삼성의 악행

이건희다운 이마트 노동조합원 전원 해고

지난 9일 삼성 계열 이마트가 노조원 전원을 해고했다. 이것은 이견희 학위수여에 반대한 학생들이 폭로한 삼성의 노동 탄압이 현재진행형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이마트는 그 동안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납치, 감금, 협박 등 온갖 악행을 자행했다. 이런 범죄 행위에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이마트는 오히려 가처분 신청을 해 노조 탄압 현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만 해도 노동자들에게 벌금 50만 원을 물렸다.

살인적 인권유린 때문에 22명 조합원 중에 18명이 탈퇴할 수밖에 없었고, 1명은 해고당했다. 남아서 끝까지 투쟁하던 3명까지 이번에 완전히 해고당했다.

그럼에도 사측 관계자는 “해직된 직원들은 자숙은커녕 오히려 회사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



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만큼 해고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강도가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인 적반하장은 이 상

황에 딱 맞는 말인 듯싶다.

어윤대 총장은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실현에 앞장서 왔다”며 이견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기본적 민주주의 권리인 노조결성의 자유를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것이 여총장에게는 “더불어 사는” 것인가?

>> 2면에서 이어짐

부끄럽게 생각하며 독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항상 정문직필, 사회를 밝힌다, 민주주의 지지, 젊고 강한 등을 표방하면서 매일 발행되는 신문들이 결국 삼성이라는 ‘자본’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재벌과 대학 간의 이러한 부도덕한 학위 매매를 저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몸싸움을 벌인 것이 ‘폭력’ 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장시간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에 허덕이게 하며, 그나마 노조라도 만들어보려는 노동자들을 납치·감금·폭행한 삼성의 행위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 대학인으로서의 최소

한의 양심을 표출한 학생들을 두고 그저 ‘철부지’ 나 ‘반지성주의’ 나 하는 식으로 매도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철이 든 어른’ 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번 사태가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비판적 의식을 갖춘 학생들의 폭력성이 아니다. 대학의 반지성주의가 결코 아니다. 자본이라는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수구신문의 ... 서글픈 초상이다.”

코오롱건설노조

“고려대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다. ... 세계인권법을 역행하는 무노조 경영, 황제 경영, 봉건주의식 경영의 최

고 악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견희에게 도대체 철학 박사라니? 나는 [항의 시위를] 고려대학교의 참주인인 학생들이 명예를 걸고 온몸으로 막아선 영웅적 거사로 평가하고 싶다.”

진보네트워크

“형식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가공권력도 못 한다는 휴대폰 추적을 일개 기업에서 제멋대로 해할 때도, 부당 해고된 삼성 노동자들이 피 터지게 싸울 때도 취급하려하지 않던 그 언론이 480억 기부금으로 사는 학위를 막아 자신 대학의 지성을 지키려 한 학생들의 행동에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 우습다. 그/녀들의 행동은 정당하기에 그 뜻에 동참하고 엄호하는 이데올로기와 실천이 고려대라는 학교

에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당신들의 행동에 연대의 뜻을 보냅니다!”

김우용이 청주교도소에서 (파업 행동 때문에 구속된 기아차 노조원)

“다함께 고대 동지들, 동지들이 보여 준 항의 행동은 수많은 삼성의 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들,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에게 청량음료보다 시원한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삼성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선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도 정당하고 정의로운 고대 동지들의 금번 투쟁에 큰 박수와 합성을 보내고 싶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저에게 통과하고 가슴 설레이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힘차게 투쟁합시다.”

학문에는 관심 없고 세일즈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들이 학생을 징계할 자객

●어윤대 총장 하의 고려대 '자유·정의·진리'는 간데 없고 '경쟁·시장·이윤'만 남다

어윤대 총장은 총장 취임 직후 "고려대라는 이름만 남기고 다 바꾸겠다"고 말했다. "교수가 안 됐으면 CEO가 됐을 것"이라는 어윤대 총장이 가져오겠다는 변화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다.

그에게서, 고려대 교훈인 '진리·자유·정의'는 간데 없고 오로지 '경쟁·시장·이윤'만 남았다.

어윤대 총장은 학교를 기업의 장사터로 만들었다. 스타벅스, 던킨도너츠, 맥주 바 '위하고'가 들어섰고 해마다 '기업-대학 공동포럼'을 열어 기업에 요구를 교육에 반영한다.

LG전자는 '주문형 식사 제도'를 통해 학생 선발권, 교과목 설계권, 계약교수 파견권을 행사하고, 경영대 전공필수 과목에는 '삼성SDI 말레이시아의 현지화'가 수업 내용에 포함돼 있다. 오죽하면 경제신문이 주는 마케팅 대상을 받았을 정도이다.

어윤대 총장은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를 찬성하고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금 인상 반대 분관 점거 투쟁에 손배가 압류를 들먹인 바 있다.

어윤대 총장은 "이라크 파병하기로 결정한 만큼 준수하는 게 옳다", "탄핵 반대 촛불 시위도 법을 어긴다면 과감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판 <월간조선>인 <문예춘추>는 "한국의 신 실력자"라며 한승조 교수와 함께 어윤대 총장을 인터뷰했다.

고려대에서 청소·미화 노동자들은 한달에 40~50만 원을 받는데 처장단은 세미나를 한 다며 제주도로 가서 한끼 식사에 70만 원을 쓰는 것이 바로 어윤대 총장이 만든 고려대이다.

●학교를 기업에 파는 최선두 주자, 이두희 대외협력처장 교수인가? 'PR 마인드'로 무장한 기업체 홍보담당 이사인가?

이두희 대외협력처장은 '글로벌 KU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대학투자를 최선두에서 주도해 왔다.

2001년 <전자신문>이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마케팅 전문가"라고 한 그는 2003년 대외협력처장이 된 후 학교를 기업에 파는 최고 전문가가 됐다.

<조선일보>는 그를 "기부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재단과 학교의 헌신적인 노력은 이미 교육계의 전설로 기록된다"고 '칭찬'했다.

그는 학교를 방문한 '기부자'들에게 '붉은 카펫'을 깔고 호텔급 대접을 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기부금을 낸 기업들에게 건물 이름을 선물했다. 'LG-포스코 경영관', 'CJ인터넷 서넬하우스', 'SK 정보관', '100주년 기념 삼성관' 등이 그것이다. 이는 지난 1995년 그가 작성한 '미·일 명문대학 벤치마킹 보고서' 대로 추진한 결과이다.

붉은 카펫

그 보고서에서 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경영대 건물에 각 교실마다 '기부자'의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나 건물 현관 대형 크리스탈 평면에 기증액의 등급에 따라 이름을 새겨 놓은 것을 칭찬한다. 그러더니 'LG-포스코 경영관'의 모든 강의실과 세미나실을 기업가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김승유(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강의실', '이명박 라운지', '이학수(삼성 구조조정본부장) 강의실', '강신호(전경련 회장) 강의실' 등이 그것이다.

개교 1백주년 기념으로 최고급 와인 '라 카르도네'를 2만 병이나 수입하는 사치성 행사를 치른 것은 이두희 처장의 제안이었다. 주한 외교관들과 발전기금을 낸 사람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해 여는 사교 클럽 같은 '크림스 마스터즈 콘서트'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건희가 학위수여를 받으러 왔다가 봉변을 당해 뒷문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부인 홍라희가 만찬을 대신 주최했는데, 그 만찬은 LG-포스코관 꼭대기에 있는 연회장에서 치러졌다.

100주년 삼성관에는 기증자의 '송고한' 뜻



을 기리는 전시실까지 두고 있다. 사실, 학생들이 투쟁으로 따낸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호화찬란한 전시관으로 가득하다. 삼성관에 들어서면 학교건물에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고대'라는 기둥을 재벌들에게 세일즈하기 위한 건물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자본주의 기업에 대한 이런 구애 덕분에 2002년 637억까지 줄었던 모금액은 이두희 교수가 대외협력처장이 된 2003년부터 870억원, 2004년에는 무려 12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쯤 되면 <신동아> 기자의 표현 그대로 이두희 대외협력처장은 "PR 마인드"로 무장한 기업체 홍보담당 이사"나 다름없다.

●김병관 이사장의 추태

김성수의 아들인 김병관 현 이사장은 <새아일보>를 통해서 수천억 원대의 탈세를 거둔 사실이 2001년에 폭로된 바 있다. 그의 아들 김재열은 삼성 이견희 회장의 딸

I 있는가



관 꼭대기에 있는 기업인 접대용 초호화 연회장
너현과 결혼했다.

김병관과 관련한 황당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바로 2000년 김영삼 고려대 강연 무산 사건이다.

당시 고대 학생들은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주범 김영삼의 방문을 가로막았다. 김병관 이사장은 낮 2시(밤이 아님!)에 술 냄새를 짙짙 풍기면서 나타나 횡설수설을 지껄이면서 행패를 부렸다.

김병관의 모습이 오죽 추했으면 14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차 안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뽀면서까지 버티던 김영삼이 현장에 있던 <동가일보> 기자에게 “너그 회장한테 술 줌 그만 죽고 다니라”고 호통을 쳤겠는가.

지금 학생들을 성숙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개학 당국이 김병관의 유치한 짓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이사장께서 어젯밤 폭음을 한 데가 오늘 낮에도 약주를 한 것으로 안다”고 옹호했다.

이런 재단과 학교 당국이 민주와 성숙을 들먹이며, 정당한 투쟁을 한 학생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섰어도 학생들의 조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기업 투자가 늘 동안 등록금 부담은 오히려 늘다

LG, 포스코, 삼성, 하나은행 등의 기업 기부금이 들어오는 동안에도 등록금이 계속 올랐다. 어윤대 총장은 기업들의 투자가 학생들에게 이로울 것처럼 홍보해 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수업료가 너무 낮다”며 “등록금 책정에 대한 완전 자율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고대는 2004년 현재 1천5백여 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쌓아놓았다.



한 지붕 두 동아리 —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 갔을까?

●학생에 대한 투자 형편없어

2004년에만 학생 등록금 7백50억 원이 건물 짓는 데 쓰였다. 반면, 2004년 실험실습비는 63억 원, 도서관입비는 55억 원에 불과했다. 건물은 학생이 대개 졸업한 뒤에야 완공돼지만, 후자의 비용은 재학 중 교육 서비스의 일부이다.

●건물이 화려해질수록 자치 공간은 사라져

어윤대 총장 이후 학교에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허름한 건물들이

모두 리모델링됐지만,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존에 사용해 온 자치공간에서 쫓겨나야 했다.

법대 신관이 들어서면서 학생회실과 학회실들은 쫓겨날 뻔하다가 그나마 투쟁해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금의 구법관 지하 학회실로 옮겨야 했다.

교양관이 기부자의 이름을 따 ‘우당 교양관’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할 때 문대 학회실과 과실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가 곧 허물지도 모른다는 지금의 홍보관으로 옮기는 것을 겨우 약속받고 쫓겨났다. 이것마저 투쟁의 성과다.

이공대쪽에서도 새로운 건물들이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학생들의 과실은 아직도 귀신이 나올 것처럼 누추한 애기능 학관에 남아 있다.

허름한

등록금이 제일 비싼 편에 속하는 미술학부 학생들은 학교 귀퉁이의 실습실 하나 제대로 없는 허름한 건물에서 작업해야 한다.

졸업 후 대개 노동계급의 일부(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지, 사범대 학생들의 과실과 학회실이 있는 사범대 분관은 아예 철거될 뻔했다. 학교는 작년에 사범대 분관을 아예 허물고 그 자리에 호텔을 건립하려다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취소해야 했다.

학교 전체로도 건물은 계속 늘어나지만, 학생들의 학문탐구와 자치활동에는 전혀 상관없는 공간만 늘어날 뿐, 학생들은 여전히 찬물만 나오는 건물에서 두 동아리가 칸막이만 쳐놓고 한 방을 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관의 유일한 학생공간인 도서관은 학생들이 투쟁한 성과다. 애초에 백주년 기념관 설계도에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삼성관 건립을 포함해 100주년 기념 사업에 올해 인상된 학생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인 55억 원이나 들어갔는데도 말이다.

이쯤 되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라 기업인 셈이다.

총학 탄핵 시도 중단하라

‘평화고대’는 총학생회와 ‘다 함께’ 고대모임이 5월 16일까지 5월 2일 시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총학생회 불신임 투표 상정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실, ‘총학 없는 평화고대’를 주도하는 소수 사람들과 ‘고대 제일주의’와 같은 우파 학생 단체들은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을 총학생회 탄핵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

‘평화고대’의 리더인 이승준은 애초에 삼성의 노동탄압에 반대하지도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었다. 그러던 그가 학우들의 여론을 눈치 채고는 ‘삼성에는 나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던 것이다.

꼬투리

이들은 학우들의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포장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 왔다. 최근 탄핵 의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평화고대’는 자신의 이름에서 은근슬쩍 ‘총학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빼버렸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계속 총학 탄핵을 위한 서명을 받는 모순된 행동을 해 왔다.

‘평화고대’는 시위 참가자 징계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징계 대책위와 대립하며 사실상 학교측 징계 방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과 요구 서명과 총학 탄핵 운동만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사과를 조건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협박하는 학교측과 사과를 할 때만 총학 탄핵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고대’ 사이에 대체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가?

심지어 총학생회가 이 시위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총학생회를 계속



조선일보를 기쁘게 하고 있는 ‘평화 고대’

물고늘어지는 것도 저의가의 심스럽다. 이견희 항의시위는 이견희 같은 자가 철학박사 받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학우들의 자발적 제안과 참여로 이루어진 시위였고 총학생회가 애초 제안자도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총학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이들이 진정 ‘시위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면 당장 사과 요구를 중단해야 맞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시위의 정당

성에 대해서는 걸치레식으로 한 마디 하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은 ‘폭력’을 꼬투리 삼아 시위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있다.

생떼

‘평화고대’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쓰는 이유는 총학생회로 대표되는 진보적 학생 운동 세력의 활동 자체에 타격을 주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노무현

탄핵을 열렬히 응원했던 <조선일보>가 “고대 내에서 반총학 바람이 불고 있다”며 왜곡을 부르는 것이다.

총학 탄핵 요구가 포함된 ‘평화고대’ 쪽 서명에 동참한 학우들은 대체로 총학생회에 대한 이러저러한 불만 때문에 서명에 동참했을 수 있다.

그러나 ‘평화고대’의 의도가 학내의 진보적 목소리 자체를 막으려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운동에 힘을 실어 주어서 안 된다.

징계 반대에 동참합시다!

이견희 박사학위 수여 항의 시위에 대한 지지와 징계 반대 목소리가 학내에서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흥세화, 손석춘, 박노자, 김동춘, 강수들, 심상정, 노회찬, 단병호, 이영순, 천영세 등 저명한 인사들과 단

체들이 지지 목소리를 높인 것과 맞물렸다.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 KBS 시사투나잇 등의 언론들도 시위 참가자들을 옹호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럼에도 학교 당국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대한 징계 계획을 멈추

지 않고 있다. 학생처는 지난 5월 11일 ‘시위 참가 학생들 중 5명을 시위 주동자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총학생회에 통보했다.

학교가 지목한 징계 대상자는 이윤희 문과대 학생회장, 서범진 다함께 고려대 모임 대표, 홍

학내에서 확산되는 징계 반대 목소리

한 교수님(〈한겨레21〉과 인터뷰 중에서)

“어 총장이 특유의 추진력으로 2년 동안 학교를 많이 바꿨지만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의 정체성이 훼손된 건 분명합니다. 대학은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 주는 곳이 돼버린 거죠.”

한국사회연구회

“몇몇 사람들은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고대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말한다. 반지성적인 이견희에게 철학박사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왕관을 씌워 준다는데 그것을 반대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선배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지켜왔던 고대의 정신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이 오히려 명예를 지켜내었다고 생각한다. 대관절 삼성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학교가, 이 사회가 그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가?”

사회과학동아리 공동성명서

“학교는 당장 시위 참가 학생

들에 대한 징계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학교는 과연 누구의 편이란 말인가? 대기업의 돈 앞에 무릎 꿇고 정당한 시위를 한 학생들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이 지성을 부르짖는 민족고대가 앞장서서 할 일이란 말인가? 철학과 학생들, 교수들, 더 나아가 고대 전체 학우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은 바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과 어윤대 총장이다.”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이견희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기껏 ‘명예’ 자 붙은 학위라며 공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다면 ‘명예’로운 사람에게 줄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학술 또는 문화 발전에 공헌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라는 ‘명예박사’의 정의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로 고치거나, ‘학교에 돈 많이 기부하면 그 댓가로 주는 학위’로 고치길 바란다.”

대학원 총학생회

“삼성 측의 경영방식에 대한



총학생회가 주최한 자유토론회에서 징계반대 발언을 하고 있는 학우

문제제기는 ... 민주시민의 기본자세이다. ... 영속적인 민주화와 ‘민주사회의 발전’을 말하는 자들이 이른바 ‘질서의 관점’에서 이들의 문제제기를 말살하고 ‘폭도’ 또는 ‘행사를 방해하는 폭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학교 측 스스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퇴행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고려대 학생위원회

“당연한 시위에 대해 총장이 사과를 하고 모든 보직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한 편의 우울한 코미디였다. 도대체 백주년을 맞는 민족사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누

구란 말인가. ...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 개교 백주년을 맞는 민족사학으로서 대학다운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지한 모색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안사회 연구동아리 [다른미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보면, 분명히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삼성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들의 경영철학(?)을 체현시키고 있다. 과연 삼성의 경영철학(?)이 법률에 우선할 수 있다는 말인가?”

명교 경영대 학생회장, 안형우 사범대 학생회장, 조영관 정경대 학생회장이다.

장막

하지만,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 무엇을 근거와 기준으로 이 학생들을 징계 물망에 올렸는지는 장막에 가려져 있다.

징계 반대 목소리는 학교가 징계를 확정하기도 전에 이미

확대돼 학교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징계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한 첫 날에 이미 1천90명의 학생들이 서명을 했다. 지금까지 2500여 명의 학생들이 서명을 통해 징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학우들의 따뜻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서서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한다’며 음료수나 간식을 사다주는 학우들도 있었다.

또, 붙이기만 하면 금세 뜯기는 대자보를 정성껏 다시 붙여주는 학우들도 있었고, 징계 대상자들을 격려해 주는 학우들도 있었다.

어떤 학우들은 친구들에게 서명을 받아다 주겠다고 서명판을 받아가지기도 했다.

이런 지지가 좀더 모인다면 학교측을 완전히 물러서게 할 수 있다. 지금, 학우들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징계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징계반대 대책위에 함께 합시다!
<http://cafe.daum.net/ku52dcw>

‘5.18 학생 징계 반대 민족고대 행동의 날’에 참가합시다!

징계대상자 5인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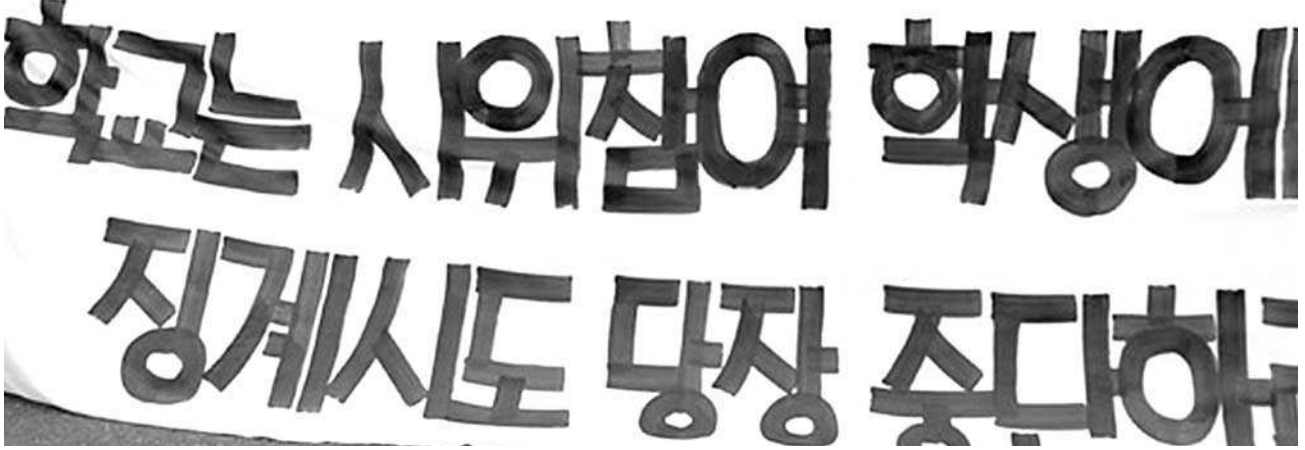


사진 : 민중의소리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5명의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래 주장은 가나다순, 그리고 서범진을 제외한 사람들의 말은 유뉴스 보도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징계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서범진
다함께 고려대 모임 대표

학교측에서는 사과하라고 하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며 꽤 거였다. 우리의 시위는 노동탄압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였다. 학교측은 징계 운운하며 우리의 문제제기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 나는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 '사과' 운운하는 학교측의 행태에 분노하며 징계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안형우
사범대 학생회장

기업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노동자에게는 수억의 손배가 압류를 하고, 노동자에게 임금 한푼 올려주는 것도 아까

워하는 기업이 호화찬란한 건물을 짓는 데 4백억씩이나 되는 돈을 사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 100주년이라 청결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분들에게는 감사패 한번, 기념식 초청장 한번 쥐본 적 없는 학교가 노동탄압과 불법증여, 정경유착으로 돈을 모은 이건희 회장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높였다'며 명예 박사학위를 주었다.



이유미
문과대 학생회장

지난 2000년에 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막았던 학생들의 행동과 지금의 학생들이 한 행동의 차이가 무엇이나. ... 200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집회에 주동자 선별의 기

준이 무엇인지 공개하라. ... 지금 학교측이 보이는 모습은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조영관
정경대 학생회장

학교가 5명의 학생들의 처벌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이다. ... 지금 학교측이 진정 해야 할 일은 이건희 삼성회장의 고려

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학생들과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홍명교
경영대 학생회장

이번 고려대 사건은 자본에 종속되는 대학의 모습을 단면으로 보는 것 같다. 징계는 두렵지 않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후배들이 사회에 대한 건강한 문제의식과 자유로운 표현을 못한 채 꿈과 희망을 너무 쉽게 저버릴까봐 그것이 더 두렵다.

학생징계반대 민족고대 행동의 날
 일시: 5월 18일 (수) 2시 장소: 민주광장
 주최: 징계반대대책위